

新羅 月池 출토 墨書土器 명문의 의미

– 소위 ‘言·貞·茶’ 銘 盃를 중심으로

The Meaning of Inscription on Ink-inscribed Pottery(墨書土器) Excavated from Weolji Pond(月池) in the Silla Dynasty

저자 (Authors)	李東柱 LEE, Dong Joo
출처 (Source)	진단학보 , (131), 2018.12, 1-24 (24 pages) THE CHIN-TAN HAKPO , (131), 2018.12, 1-24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진단학회 The Chin-Tan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7555
APA Style	李東柱 (2018). 新羅 月池 출토 墨書土器 명문의 의미. 진단학보 , (131), 1-2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9 14:2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月池 출토 墨書土器 명문의 의미 *

- 소위 ‘言·貞·茶’銘 盃을 중심으로 -

李 東 柱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명문의 의미 |
| II. 목서 토기의 출토정황 | V. 맺음말 |
| III. 명문의 판독 | |

〈국문요약〉

경주 안압지(현 월지)에서는 신라 왕족들의 삶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유물 가운데 목서 토기는 당시 신라인들의 사고, 교양 수준, 제의 등의 양상을 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여기서는 목서 토기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소위 ‘言·貞·茶’명 완(雁836)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주안점은 기제 시점에 주목하여 명문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유추하며, 명문의 내용을 통해 용도와 기능을 추정할 단서를 추정하였다. 목서 토기는 소비지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서사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토기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 서사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기존의 판독에 의심을 가지고, 선본의 사진을 통해 재판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 판독문이 발굴보고서와 연구 논문, 도록 등에 상이하게 기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굴보고서에는 ‘言·貞·榮’으로 판독하였는데, 이후 고경희의 논문에서 ‘言·貞·茶’로 언급된 이후 그대로 통용되었다. 그 결과 이 유물은 신라 시대 차 문화를 논하는 데 활용되는 고정관념을 낳았다. 재판독 결과 적어도 茶로 볼 수 있는 글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명문은 ‘言·貞·崇’으로 읽을 수 있다. 토기의 외면에는 濃淡의 차이에 따른 글자들이 다수 확인된다. 진한 글자가 5자인데, 두 글자는 작고, 세 글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큼직하게 써져 있다. 큰 글자 사이에 연하게 貞자를 반복적으로 썼다. 토기의 중심 글자는 貞인 셈이다. 글자가 끝나는 부분에는 구름과 초화가 그려져 있다. 그림 역시 글자와 연동해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중심글자 貞을 고려하면 명문의 내용은 『周易』 元·亨·利·貞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

* 이 논문은 201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연구과제명: 新羅 月池 출토 墨書土器의 기능과 용도).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다. 『周易』은 신라 국학의 교재로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토기는 당시 신라 귀족들의 교양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주제어 : 신라 월지, 목서 토기, 『周易』, ‘言·貞·茶’명 완

I. 머리말

1974년 11월부터 안압지(현 월지) 일대는 경주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준설작업이 계획되어 있었다. 준설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연못 중앙부에 너비 2m의 트렌치, 서안 북편 일부에 너비 10m의 트렌치를 설정한 뒤 터파기를 시작하였다. 터파기 도중에 다량의 와편이 출토되자 경주 사적 관리사무소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해 12월 17일 회의를 열어 학술조사를 위한 발굴 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결하였다.

월지 내부에서는 예상대로 와전류(完 5,798/片 17,752), 용기류(完 1,748/片 121), 목재류(完 1,132/片 85), 금속류(完 843/片 266), 목간류(86), 철기류(694), 동물뼈(434), 석제류(62), 기타류(4,226) 등 막대한 수량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보고된 유물은 완형 15,023점, 편 18,224점에 달하며, 대부분 서쪽과 남쪽의 호안석축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¹⁾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당시 왕실 문화의 한 단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로 각광받았다.²⁾ 유물 가운데 목간과 토기 등에 쓰인 문자는 신라인이 직접 쓴 육필 자료였다. 당시에 서사된 문자라는 점에서 문헌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녔다고 하겠다. 월지 출토 문자 자료는 고경희에 의해 전반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그는 명문이 있는 유물들을 材質, 器形, 用具, 瓦磚, 意味 별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의미를 크게 제사, 재래신앙, 길상, 미상, 관부, 관등, 제작 관련, 사용 위치, 건물명, 사명, 연호 및 간지, 시문 및 기타, 짝 등으로 분류하였다. 고경희는 분류를 통해 문자 상호 간에 공통점을 도출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器形, 서체, 기명 부위, 기명 기법 등 여러 측면에서 상호 관련성을 추적했으나 별다른 공통점은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³⁾ 오히려 이점이 월지 출토

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1978, p.90.

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유물에 새겨진 古代文字』, 소문출판인쇄사, 1997; 국립청주박물관,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통천문화사, 2000; 國立慶州博物館, 『文字로 본 新羅』, 학연문화사, 2002; 國立中央博物館, 『문자, 그 이후』, 통천문화사, 2011.

3) 高敬姬, 「新羅 月池 出土 在銘遺物에 對한 銘文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문자 자료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즉 어떤 통일성을 가지기보다는 다양한 기물들이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되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점을 유념하면서 여기서는 ‘언·정·다’명 묵서토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 토기는 198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안압지 특별전 도록의 첫 장을 장식⁴⁾할 정도로 비중이 있었다. 토기의 器形은 완이며, 의미는 시문 및 기타로 분류된 것이다.⁵⁾ 사실 묵서 토기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며, 적은 수량으로 인해 연구의 영역으로 확대되진 못했던 것 같다. 토기에 보이는 문자는 대부분 생산 집단이나 소비처를 명기하기 위해 공방에서 쓴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묵서는 토기가 소비지에 납품된 이후 어떤 필요성에 의해 추가적으로 서사된 경우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토기에 문자를 기입하는 행위 자체를 음식물을 풍성하게 하여 신에게 봉헌하는 것과 관련짓기도 한다.⁶⁾ 문자의 기입 목적을 제의적인 용도에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

신라 묵서 토기는 박방룡이 이양선 기증유물 가운데 유개 고배에서 ‘上撰干徒, 屹叱丁次’를 읽어내고 그것이 가진 사적 의미를 다룬 것이 최초이다.⁷⁾ 그는 屹叱丁次를 인명으로, 上撰干徒를 上人, 외위 撰干, 徒를 무리로 풀어 지방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보았다. 묵서 토기를 통해 당시 지방 유력자의 양상을 역동적으로 소묘하였다. 묵서가 지닌 사료적 가치를 가감 없이 보여준 사례이겠지만, 명문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컨대 屹叱丁次가 고분의 피장자인지, 고분 축조 집단의 우두머리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자료는 문자 자료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 출토지를 확정할 수 없어 그 의미가 반감된다. 제작시기도 6세기 말~7세기 초에 걸쳐 있어 8세기 대인 월지 출토 묵서 토기와 직접 비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반해 월지 출토 묵서 토기는 왕경의 핵심시설인 동궁 일대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서사 과정에서 중앙 관료들이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시 지배층의 심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 따라서 묵서 토기의 명문을 정확하게 관독하고 해석해 낼 수 있다면 당시의 사회상을 복원할 수 있는 잃어버린 고리를 하나 더 찾는 셈이다.

1993, pp.75~77.

4) 國立中央博物館, 『雁鴨池』, 通川文化社, 1980, p.5.

5) 高敬姬, 앞의 논문.

6) 平川南, 『墨書土器の研究』, 吉川弘文館, 2000, p.11.

7) 朴方龍, 「傳 嶺南地方 出土 墨書銘有蓋高杯」,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新興印刷所, 1996, pp.497~507.

여기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유념하면서 묵서 토기의 분석을 통해 그 용도를 가늠해 보려 한다. 토기와 관련된 발굴 현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대체적인 명문의 성격이 드러날 것이다. 그 선상에서 이 토기의 문자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서사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싶었다. 이를 위해 본고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해보았다.

II장에서는 정확한 판독을 위한 절차와 유물의 출토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때 판독을 위해 관찰 전 중점사항인 문자의 기재순서, 획순의 정확성 여부, 서사 부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국립경주박물관의 협조로 확보된 善本의 사진을 확대 검토해 보았다. 기존 판독문과의 차이를 통해 명문의 해석을 시도해 보려는 차원이다. 판독 결과 이 토기에 쓰인 문자가 『주역』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판독 내용을 토대로 IV장에서는 명문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역』은 신라 국학의 교재이며, 천지만물의 이치를 정리한 텍스트이다. 그런 측면에서 묵서는 당시 신라 관료들의 교양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문자 자료는 새로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공개되었으면서도 연구되지 않은 문자 자료 역시 신자료라 할 수 있다.⁸⁾ 발굴된 지 수 십 년이 지난 ‘언·정·다’명 묵서 토기를 다시금 음미해 보려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II. 묵서 토기의 출토정황

신라 왕경에서 적지 않은 수량의 명문토기들이 출토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용도나 기능의 복원에 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다. 목간과는 달리 대부분 1~2글자의 단문이 대부분이고, 출토 수량도 많지 않아서 일 것이다.

묵서 토기는 용어 자체가 다소 이질적이나 일반적으로 명문토기의 범주에 들어간다. 서사 도구를 중시하여 토기에 먹으로 문자나 기호, 그림 등을 쓴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⁹⁾ 토기에 문자를 기입할 경우 크게 대칼, 인장, 금속기, 떡 등이 이용된다.¹⁰⁾ 대칼이나 인장은 토기의 흙이 마르기 전에 사용이 되므로 그것을 제작하는 공방에서 사용이 되었다. 이에 반

8) 이영호, 「新羅의 新發見 文字資料와 研究動向」, 『한국고대사연구』 57, 2010, p.205.

9) 일본의 경우 대칼이나 못 등으로 굽은 각서 토기까지 아울러서 사용하기도 한다. 平川南, 『國史大辭典』 12, 吉川弘文館, 1991, p.693.

10) 이동주, 「경주 화곡 출토 在銘土器의 성격」, 『목간과 문자』 10, 2013; 김재홍, 「新羅 王京 出土 銘文土器의 생산과 유통」, 『한국고대사연구』 73, 2014.

해 금속기나 먹은 토기가 구워진 후에 사용이 되므로 소비지에서 서사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¹¹⁾ 묵서 토기는 한국의 경우 신라 왕경과 이천 설봉산성 등지에서 몇 점 출토된 것이 전부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沖繩을 제외한 北海道에서 鹿兒島縣까지 전 지역에 걸쳐 묵서 토기가 출토된다.¹²⁾ 출토 양도 막대하며, 심지어 한 유적에서 1,000점을 상회하기도 한다.¹³⁾ 목간이나 묵서 토기 등 출토 문자 자료가 증가일로에 있어 기왕의 ‘문헌사학’을 대신하여 ‘文字情報史學’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이다.¹⁴⁾ 기본적으로 출토 자료는 고고학의 영역이지만, 문자는 문헌에 해당되기 때문일 것이다.

토기에 명문을 서사하는 행위는 사용과는 별개의 思考이다. 문자는 기물을 사용하는데 크게 간섭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토기에 문자를 쓰기 위해서는 별도로 먹, 물, 붓, 베틀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고, 서사자의 의도가 작용하여야 한다. 이때 토기는 종이를 대신하여 일종의 서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서사 행위는 어떤 모종의 필요성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토기에 쓰인 명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출토 정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월지 출토 토기들은 이러한 정보를 추출하기가 어렵다. 워낙 많은 토기들이 출토되다 보니 정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대부분 정확한 출토 지점을 명기해 놓지 않았다. 월지는 본격적인 발굴에 앞서 기준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 10m 크기의 방안을 설정하였다. 남에서 북으로는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하였고, 서에서 동으로는 알파벳 기호를 부여하여 구분하였다. 그래서 좌표에 따라 A1, A2... B1, B2... 식으로 각 공간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였다.

‘언·정·다’명 토기는 器形이 畧이다. 월지에서는 토기류가 완형으로 1,748점이 출토되었다. 이는 전체 유물 15,023점의 11.6%에 달하며, 와전류(38.6%) 다음으로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완류는 대부분이 422점, 원저완이 127점이 수습되었는데, 대부분 월지 東岸의 N16區, N17區, N18區, O16區, O18區에 군집해서 출토했다고 한다.¹⁵⁾ 이는 매우 중요한 출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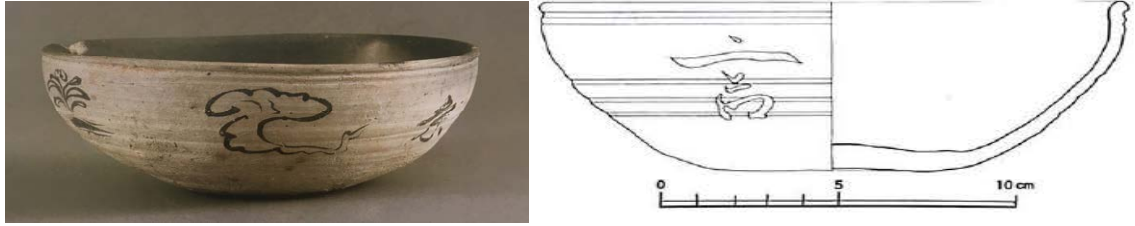
11) 금속기의 경우 월지 출토 ‘酒鉢’명 대부분, ‘崇’명 대부분, ‘會’명 대부분, ‘金’명 접시, ‘丙’명 접시, ‘辛’명 대웅 등이 해당된다.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책, pp.79~80.

12) 友納千幡, 「墨書土器の難解文字に關する一考察: 千葉縣印旛沼西岸地域の出土事例を中心に」, 『千葉大學大學院人文社會科學研究科研究プロジェクト報告書』, 2015, p.141.

13) 高島英之, 「墨書土器」, 『古代出土 文字資料の研究』, 東京堂出版, 2000, p.197.

14) 吉村武彦, 「墨書土器研究の現在: データベース化された墨書土器」, 『駿台史學』 117, 2003, p.102.

1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보고서, p.82.



〈그림 2〉 ‘言貞茶’銘 盞의 사진과 실측도

③墨書銘盞

高 6.7cm, 구경 16.8cm

直立口緣을 한 圓底盞으로서 口緣 外面에 一條의 沈線이 들려 있다. 器外面에 「言」, 「貞」, 「榮」의 三字와 「雲文」, 「草花文」를 一定한 間격으로 墨書하였다. 「榮」字와 「貞」字 사이에는 壼고 작은 글씨로 「茶」자가 쓰여 있으며, 「貞」과 「言」 사이에는 「唾」·「貞」字가 壼게 쓰여져 있다.

胎土는 精選된 것을 使用하였으나 燒成度는 매우 낮다. 色調는 器外面이 白灰色이고 口像部에서 內面의 殆半은 黑灰色이다(圖版 215 左의 中·下, 圖面 141의 6列左).

월지에서 출토된 묵서 토기는 건물의 반대편에서 수습되었다. 토기가 완형이라는 점에서 파손으로 인해 폐기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토기는 건물에서 묵서되어 이곳으로 이동했던 지, 건물과는 별도의 공간에서 묵서되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토기에는 濃淡의 차이에 따라 구별되는 글자가 다수 확인된다. 이 점을 감안하면 묵서를 한 주체는 먹, 물, 붓, 베틀 등이 사전에 준비된 사람일 것이다. 그 선상에서 서사의 주체는 동궁 산하 관료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명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판독을 점검해 보자.

Ⅲ. 명문의 판독

‘언·정·다’명 완은 그간 신라의 차 문화와 관련하여 다루어졌다. 한국 고대 문자전을 주관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토기를 “고대인들은 차도 즐겼다. 통일신라 자료에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담소를 나눈다는 의미로 보이는 茶(차 다), 貞(정숙할 정), 言(말씀 언)이란 글을 쓴 접시와 차의 연못이란 의미의 다연원茶淵院이란 기관도 있었다. 술도 즐겼는데 술 따르는 그릇을 주발酒鉢이라 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¹⁹⁾ 하지만 문자를 읽는 방향이 오른쪽

19)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p.140.

에서 왼쪽이므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담소를 나눈다”는 해석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아울러 비교자료로 제시한 다연원명 기와의 경우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므로 토기와와의 시기 차도 상당하다.

최근에는 이 토기를 의례 시 사용했던 의식용 茶器로 보고, 일반 찻잔보다 크므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마셨을 것이란 추론으로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器形이 유사한 ‘辛審龍王’명 토기 역시 용왕전에서 기우제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되었던 찻잔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왕실에서 차를 기호음료로 향유하면서 승려들에게도 하사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기우제나 의례를 행할 때 차를 이용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²⁰⁾ 그의 지적대로 신라에서 차를 음용했던 시기는 선덕여왕대가 가장 이르며, 흥덕왕대는 차의 종자를 심기도 하였다. 의례에서 차를 사용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기를 맞아 신라 사회에서 飲茶문화가 확산일로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토기를 신라시대 찻 사발로 규정한 주요한 근거가 茶로 판독한 것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辛審龍王’명 토기가 찻 사발일 수 있다. 그런데 ‘신심용왕’ 명 토기의 문자는 생산공정에서 새겨진 것이다.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토기의 사용 용도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 하에 새겨진 것이다. 용왕제에 사용되었을지언정 그 속에 무엇을 담았는지는 속단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언·정·다’명 토기 역시 명문의 전체를 파악하고, 배열된 그림까지 해석할 때 비로소 그 성격이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기존의 판독이 올바른지 의심이 필요하다.

2018년 3월 15일 ‘언·정·다’명 완의 실물을 관찰하기 위해 국립 경주박물관 소장품 정리팀 담당자에게 유물 열람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현재 수장된 유물들이 외부 수장고로 이관 작업 중이므로 열람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박물관에 소장된 고해상의 유물 사진을 행정 절차를 거쳐 받게 되었다.²¹⁾ 문자 연구의 출발은 유물에 대한 현상파악과 정확한 판독에 있다. 이에 토기의 기종, 묵서 된 부위, 필법, 書風, 자형 등 다각적인 시야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판독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유물 관찰에서 중시했던 사항은 아래와 같다.

20) 奇允姬, 「신라 興德王代 茶 재배와 사회적 의의」,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pp.8~9.

21) 국립경주박물관 소장품 정리팀 정혁수 연구원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① 기존 판독문은 타당하며, 필순에 맞게 썼는가.
- ② 일정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문인가.
- ③ 토기의 어느 부위에 글자를 썼는가.
- ④ 글자를 읽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인가, 아니면 거꾸로 인가.
- ⑤ 낙서 혹은 연습인가, 아니면 무질서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가.
- ⑥ 어떠한 서체를 구사하였는가.
- ⑦ 토기가 출토된 월지 내 환경(공반유물, 지점)은 어떠한가.

‘언·정·다’명 완을 판독할 때 유의했던 점은 기존 판독문의 정확성과 筆順이었다. 필순은 문자의 習熟度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테면 화곡 와요지는 월성과 동궁에 토기를 공급했던 관요인데, 그곳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 필순이 어긋난 사례가 확인된다. 토기 공방이란 환경을 염두에 두면 서사 행위는 토기 공인이나 검수자인 하급관리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²²⁾ 이에 비해 묵서 토기는 소비지에서 발견된다. 월지의 경우 서사의 대상자가 동궁 산하의 관료일 가능성이 높다.

묵서 토기의 대부분 1자 내지 2자이지만, ‘언·정·다’명 완의 경우 꽤 많은 글자들이 동체에 쓰여 있었다. ‘言·貞·茶’명 완은 그간 차사발로 통용되어 왔으나, 관찰 결과 적어도 茶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명문도 ‘言·貞·茶’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글자들이 확인된다. 여기에 더해 문자가 종결된 다음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문자와 아울러 도상을 상호 연계시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역시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그려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사된 부위도 중시하며 관찰하였다. 가령 토기의 뚜껑의 경우 내면에 문자를 쓰게 되면 겉에서는 읽기 어렵다. 혹은 거꾸로 기재하면 읽기가 까다로워진다. 문자는 적극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습득하기 어렵다. 문자의 습득을 통해 말을 기록할 수 있고, 기록된 말은 시공을 초월하여 원격 전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메시지를 원하는 만큼 재생할 수 있으며, 1회성을 넘어 특정 관념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 토기에 문자를 기재하는 행위는 사용목적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판독의 편의를 위해 완을 완전히 평면화하여 4개의 섹터로 구분하였다. 이 완을 상징하

22) 이동주, 앞의 논문.

는 글자는 ‘言·貞·茶’이다. 그런데 그간 소홀히 다루어진 그림 부분, 큰 문자의 주변에서 획이 확인된다. 토기 사진을 크게 확대하여 관찰을 해 보니 과연 문자의 획이었다. 그래서 글자나 획이 분명한 부분들을 모두 원문자로 표시하였다. 아래 <그림 3>은 글자 주변부의 상황이다.



<그림 3> ‘言·貞·茶’명 罍의 言 주변부분

우선 토기에 문자로 보이는 부분은 원문자로 표시하여 번호를 매겼다. 번호는 서사 방향을 고려하여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의 순이다. ①번은 고경희와 보고서에서는 唾로 판독하였다. 이 글자는 ‘언·정·다’ 완의 冒頭에 해당하지만, 초화문 옆에서 동일한 문자가 확인된다. ①번만 놓고 보면 부수인 口의 내부가 약간 복잡하여 田, 目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림 6>을 보면 입구가 확실하다. 일부 획이 손상되어 판독이 쉽지 않지만 아래 획은 土로 보인다. 자획으로 미루어보면 唾로 판독한 것이 옳다. ②번의 경우 고경희는 〇, 보고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글자의 경우 획은 삼수변에 가까운데, 부수를 쓴 다음 二를 쓰고 3자를 쓰듯 내리그었다. 자획은 汚에 가깝게 보인다. 다만 <그림 6>을 보면 옆에 획은 子로 볼 여지도 있다.

③번의 경우 言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토기의 첫 번째 중심 글자이다. ㅁ의 濃淡은 ③번이 가장 진하고, ①번과 ②번이 상대적으로 연하다. ④번의 경우 言자의 가로획이 먼저 쓴 글자 위를 겹쳐 지나므로 선후관계를 따지면 ③번보다 먼저 썼다. ④, ⑤, ⑥번은 貞자를 반복적으로 쓰려고 하였다.



〈그림 4〉 ‘言·貞·茶’명 罽의 貞 주변부분

〈그림 4〉는 앞선 그림의 다음 부분이다. ⑥번은 앞 그림과 겹치며 貞자를 쓴 것이다. ⑦, ⑧번 역시 완전한 글자는 아니지만 貞자의 상단부 획이다. 이 글자를 쓴 사람은 첫 획을 붓으로 찍어 눌러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획을 완성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⑨번은 가장 진한 貞자이며, ⑩번의 경우도 貞자의 획 일부가 확인된다. ④~⑩번 까지 모두 貞자와 관련된 글자이다. 따라서 貞은 言과 마찬가지로 이 토기의 두 번째 중심 글자이다. ⑪번은 보고서에 茶로 판독을 했고, 고경희는 별도로 판독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보고서에는 큰 글자를 ‘言·貞·榮’으로 판독하고, 榮과 貞사이에 넓고 작은 글씨로 茶자가 쓰여 있으며, 貞과 言사이에 唾, 茶자가 넓게 써져 있다고 짧게 설명하였다.²³⁾ 문제는 이 글자를 茶로 볼 수 있는냐의 여부이다. 〈그림 4〉로는 글자가 비스듬하게 보이므로 글자가 바로 보이는 〈그림 5〉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5〉는 앞의 그림과 연결되며 茶자 주변의 글자들이다. 이 토기는 애초 보고서에는 ‘言·貞·榮’으로 읽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言·貞·茶’로 둔갑하였다. 지금도 ‘언·정·다’명 완으로 소통되고 있다. 문제는 ⑪번과 ⑫번의 관계, ⑬번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보고서 간행 시 ⑪번을 茶로 판독한 이유는 ⑫번의 글자를 艸頭변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획을 茶의 艸頭로 보기에 너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⑪번을 보면 마치 歹을 먼저 쓴 다음 木을 둥글게 감아 돌린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자형으로는 茶로 보기 어렵다. 만약 ⑫번을 초두로 본다면 萬자의 자형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이 토기는 큰

2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보고서, p.188.

글자를 중심으로 같은 글자를 반복적으로 서사하고 있다. 그러한 정황을 존중한다면 ⑬번과 같은 글자가 아닌가 한다.



〈그림 5〉 ‘言·貞·茶’명 甕의 茶 주변부분

⑬번의 경우 이 토기의 중심 글자이다. 보고서는 榮, 고경희는 茶로 판독하였다. 榮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상단부의 焮를 과하게 생략하였고, 아래 획 木을 좌우로 벌려 내리 그으면서 마무리하였다. 변의 생략이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아래 〈표 1〉은 崇, 榮, 茶와 관련된 중국 측 서법을 정리한 것인데, 榮의 경우 중간 획을 그대로 그어 내렸지 감아올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一 획 위는 행초 山의 자형에 더 가깝다.

묵서 토기의 글자는 行草로 서사하였기에 오히려 榮이나 茶보다는 崇에 가깝다. 崇은 당의 손과정과 이세민의 글자와 유사하다. 특히 아래 중간 획의 빼침을 감아올리는 것이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상단의 山자의 경우 부소와 손과정의 필획과 유사한 면이 있다. 茶의 경우 행서나 초서로 쓴 당의 서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나마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명 의 사탁의 필법이다.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보면 토기의 글자를 茶로 보기는 어렵고, 崇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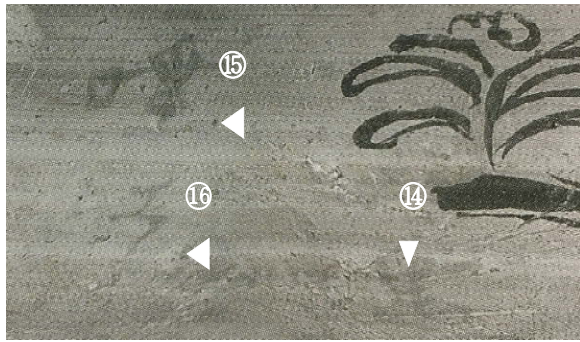
〈표 1〉 崇, 山, 榮, 茶의 자획 비교

	崇		山	
	 唐 孫過庭	 唐 李世民	 唐 懷素	 唐 孫過庭
	榮		茶	
	 唐 懷素	 隋 智永	 唐 李懷琳	 明 謝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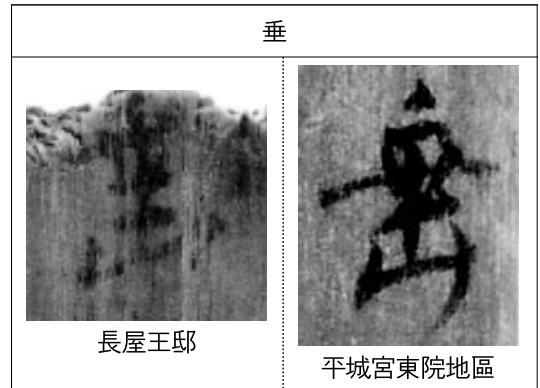
다음 〈그림 6〉은 문자 주변의 그림이다. 그림은 기본적으로 선이나 색을 칠해 인간의 감정이나 상상력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토기에 그려진 그림을 단순한 낙서로 볼 수 없다. 우선 도상을 보면 구름 혹은 바람을 그린 다음 초화를 그렸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에는 운문과 초화문으로 명명하였다. 초화문의 경우 굵은 선으로 지면을 표현한 다음 그 위로 잎사귀를 그려 풀을 묘사하였다. 구름 혹은 바람은 알파벳 M자를 쓰듯 옆으로 계속 그어 나갔으며 마지막에는 힘을 줄여 마무리하였다. 아래 선도 마찬가지로 W자를 쓰듯 그어나간 후 마지막에 힘을 줄여 마무리하였다. 초화문은 아래 굵고 짧은 획은 땅을 의미하는 것 같다. 가지를 중심으로 여섯 개의 잎을 형상화하였고, 제일 상단에는 열매로 보이는 원 주변에 몇 개의 점을 찍어 꼭지를 표현하려 한 것 같다.



〈그림 6〉 초화문 인근 문자



〈그림 7〉 초화문 인근 문자 세부



〈표 2〉 일본 목간에 보이는 垂

〈그림 7〉은 〈그림 6〉의 끝 부분만 확대한 것이다. 초화문 바로 옆으로 ⑭번, ⑮번, ⑯번의 글자가 확인된다. 이 문자 바로 옆에 ①번, ②번이 있다는 점에서 唾汚와 관련된 글자일 것이다. 우선 ⑮번 글자의 경우 부수는 입구이며, 옆의 획은 垂자로 보인다. 일본 문자 자료의 경우 唾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부수를 제외하고 垂자와 자형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표 2〉를 보면 언·정·다명 목서에 보이는 唾와 자형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판독을 정리하면 우선 농담의 차이에 따라 크게 진한 글자와 연한 글자로 구분된다. 진한 글자는 작은 글자인 唾, 汚, 큰 글자인 言, 貞, 崇으로 세분된다. 주변에 희미한 글자들은 중심 글자들을 서사한 것이며, 그중 貞자의 빈도가 가장 높다.

IV. 명문의 의미

동아시아에서 목서 토기는 전한 중기부터 후기, 新에 걸쳐 낙양, 서안 등지에서 발견된다. 전한 중기의 묘의 부장품 가운데 陶倉이라 불리는 기물이 있다. 대개 20~50cm 정도의 원통형 기물에 상부에는 가옥이 표현되어 있다. 이것의 외면에 朱書, 粉書, 墨書로 ‘白米’, ‘小豆万石’, ‘酒万石’, ‘黃金’ 등을 글을 써넣었다.²⁴⁾ 명기라는 특성상 내세에 물질적 풍요를 갈구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출토 수량이 수만 점에 육박한다. 명문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목서 토기

24) 石黒ひさ子, 「中國における「墨書土器」および「墨書陶磁器」, 『古代學研究所紀要』 18, 2013, p.98.

의 성과가 富盛한 일본 학계의 동향을 보자. 平川南은 묵서 토기의 내용을 관사 및 관직명, 인명, 지명, 길상구, 토기의 기종, 方角, 숫자, 習書 등으로 분류하였다.²⁵⁾ 일본에서는 한 유적에서 동일한 문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여러 유적에서 동일한 문자가 많이 출토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의미 파악이 어렵고, 후자의 경우 공적 시설의 명칭이나 길상구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시설의 명칭이 들어가게 되면 식기의 관리라는 기능적인 면이 고려되었을 터이고, 길상구라면 제사적인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고 한다.²⁶⁾

일본에서는 묵서 가운데 경전과 관련된 것도 확인된다. 예컨대 滋賀縣 栗東市 高野遺跡에서는 8세기 후반에 제작된 바닥면에 ‘天福來’가 묵서 된 쓰에키 坏가 수습되었다.²⁷⁾ 天福은 『列子』, 『墨子』, 『老子想爾注』 등의 중국 고전이나, 『長阿含經』, 『中阿含經』, 『增一阿含經』 등의 불교 경전에도 길상의 용어로 등장한다.²⁸⁾ 지방 집락유적에서 길상과 관련하여 富, 吉, 福, 万 등 1자만 쓰인 묵서 토기도 이와 관련이 되며, 집락의 護符的 성격으로 기능하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에까지 중국 고전의 용례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에 대한 지방층의 이해가 확산된 결과로 보았다.²⁹⁾

그렇다면 월지에서 출토된 묵서토기는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을까. 우선 큰 글자는 言, 貞, 崇, 작은 글자는 唾, 汚이다. 글자가 연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詩文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글자 수가 너무 짧은 게 약점이다. 그러면 글자의 수가 1~2자일 경우 관사나 관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즉 상징적인 글자만 사용하더라도 풀 네임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묵서명 토기 가운데 麻典을 의미할 것 같은 麻,³⁰⁾ 洗宅³¹⁾ 등 관사명도 확인이 된다. 그런데 관사명이 동반될 경우 인명과 관직도 확인되며,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다. 흡사 행정 문서를 연상시킬 정도이다. 그러면 인명이나 지명일까. 신라의 경우 통일기에 이르러 인명이나 지명이 굉장히 한화되어 버린다. 언, 정, 승의 경우 인명이나 지명으로 보

25) 平川南, 「出土文字資料の研究方法」, 『墨書土器の研究』, 吉川弘文館, 2000, p.73.

26) 坂本佳代子・岩澤和徳・松田朝由, 「墨書土器の性格: 鹿兒島を例として」, 『繩文の森から』 2, 鹿兒島縣立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04, pp.75~77.

27) 滋賀縣教育委員會文化財保護課・滋賀縣文化財保護協會編, 『琵琶湖大橋有料道路建設工事に伴う栗東町高野遺跡發掘調査報告書』, 滋賀縣教育委員會, 1987.

28) 門田誠一, 「墨書土器の吉祥語と史的背景: 「天福來」の検討を通じて」, 『佛教大學宗教文化ミュージアム研究紀要』, 佛教大學宗教文化ミュージアム, 2013, pp.6~7.

29) 위의 논문, p.12.

30)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책, p.75.

31) 위의 책, p.77.

기에 매우 어색하다. 그렇다고 묵서 토기의 의미를 토기 기종으로 보기에 애매하다. 기종은 주로 대형 토기에 집중되며 제작 전 공방에서 기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향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며, 제작 수량을 나타내는 수의 의미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언·정·다완의 경우 卍川南의 분류안 가운데 습서가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될 것이다. 실제 중심 글자의 주변에는 무질서하다고 할 정도로 습서가 이루어져 있다. 이는 서사자가 토기의 재활용보다는 습서 후 폐기를 염두에 두었을 개연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토기에 묵서를 함으로써 어떤 의도를 실현하려 했을까. 신라 묵서 토기의 특징은 1~2자의 단문으로 구성된 것들도 있지만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예컨대 묵서명 토기뚜껑 조각[雁928(4-4)]³²⁾의 경우 내면에 ‘陽安□□, 大辟感□’란 문자를 對句가 되게끔 一筆揮之로 과감하게 써 내려갔다. 흡사 종이 문서가 연상될 정도이다. 묵서의 본질은 시각적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염원이었을 것이므로 그저 낙서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우선 작은 글자 중에 唾汚가 보인다. 조선시대 張維의 개인 문집인 『谿谷漫筆』에는 “옛 글에서 더러움을 다스리는 것(治汚)을 汚라는 글자로 표현한다”³³⁾는 구절이 확인된다. 唾汚는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더러움을 다스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토기의 중심 글자는 言, 貞, 崇이며, 짧은 문장이지만 주격과 동사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 단문이다. 명문은 ‘이르기를 정을 존송하라’ 정도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言은 문장의 도입부로 사람이 말한 것을 옮길 때나 경전의 자구를 인용할 때 빈번히 사용된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면 貞을 『주역』과 관련시켜 음미해 볼 수 있다. 『주역』의 기본 사상은 자연의 법칙을 미루어 인간의 일상사와 관련시켜 사고하는 것이다. 『주역』 건괘 편에는 “文言曰, 元者善之長也, 亨者嘉之會也, 利者義之和也, 貞者事之幹也.”³⁴⁾란 구절이 확인된다. 이를 해석하면 “문언에 이르기를 원은 선의 으뜸이요, 형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리는 의의 화합함이요, 정은 일의 근간”이라고 한다. 言과 貞이 같은 구절에 보인다. 따라서 토기에 쓰인 言, 貞은 『周易』 건괘의 文言에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貞은 일의 근간(幹)이라고 한다. 『주역』의 卷頭에 건괘를 배치하고 원형이정을 설명한다.³⁵⁾ 원형이정은 네

32) 위의 책, p.75.

33) 『谿谷漫筆』 권2, 史記屈原傳渚字訓義 “古文以治汚爲汚.”

34) 『周易』 乾爲天 “文言曰, 元者善之長也, 亨者嘉之會也, 利者義之和也, 貞者事之幹也.”

35) 『周易』 乾爲天 “元亨利貞.”

글자가 합성어로 사용되거나 혹은 한두 글자로 분화되어 일종의 특수 용어로 사용된다.³⁶⁾ 여기에祟은 정을 수식할 단어로 사용이 된 듯하다.³⁷⁾ 원형이정은 『주역』을 관류하는 큰 용어이며, 乾, 坤, 屯, 臨, 隨, 无妄, 革의 卦에도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에 가능성을 높여 주는 유물이 있다. <그림 8>은 월지에서 출토된 見大見·鳳凰鳥명 묵서 뚜껑[雁844(12-5)]이다.³⁸⁾ 높이는 4.6cm, 직경 13cm이다. 명문은 겉면에 鳳凰과 鳥, 내면에 見大見이 확인된다. 겉면은 판독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면의 문자 상태는 양호하다. 문자를 보면 見자의 상단부가 상당히 두툼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 글자의 상단부가 모두 지워져 있는 느낌이다. 만약 기존대로 大로 판독하더라도 상단의 획은 없다. 토기 세척 과정에서의 훼손이 의심된다. 見의 획 처리는 ‘언·정·다’명 묵서의 貞에 가깝다.



<그림 8> 見大見·鳳凰鳥 명 묵서 토기

따라서 명문은 貞元貞으로 판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당의 연호 중 貞元(785~805)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연호를 쓰려했던 것일까. 우선 토기 뚜껑에는 인화문인 종장 연속문이 시문 되어 있다. 시문 방법은 종장연속문을 W식으로 반복적으로 찍어 눌렀다. 인화문토기의 연대관에서 이 기법은 8세기 초에 해당한다.³⁹⁾ 즉 貞元 연호와와는 3분기 정도 연대차가 발생한다. 토기를 깨뜨리지 않고 수십 년을 사용하다가 때마침 연호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 토기의 출토 지점은 알기 어렵지만 유물번호가 雁844임을 미루어보면 ‘言·貞·茶’명 완(雁836)과 같은 지점에서 출토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더구나 양자

36) 황준연, 『『주역(周易)』건괘(乾卦) “원형이정(元亨利貞)” 해석의 유형에 관한 고찰』, 『倫理研究』 121, 2018.

37) 만약 보고서의 판독대로祟이 아니라榮이라 하더라도 貞을 수식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38)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책, p.74.

39) 李東憲, 『統一新羅 開始期の 印花紋土器: 歷年代 資料 確保를 위하여』, 『한국고고학보』 81, 2011, pp.177~216.

가 동일하게 8세기에 제작된 점을 유념한다면 비슷한 시기에 서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선상에서 명문은 토기 전체에 쓰인 내용을 종합하여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외면에 鳳凰이란 문자가 확인된다. 이 경우 貞元貞과 鳳凰 양자 간에는 어떤 상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반해서 쓰였을 것이다. 봉황은 왕이 정치를 잘하여 나라가 태평하면 나타난다는 길조이다. 신체에 오덕을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왕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봉황의 일반적인 인식을 원정과 관련지을 수는 없을까. 元貞은 『주역』의 元亨利貞의 준말이며, 으뜸과 곧음을 표상한다. 양자 간에 상관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사실 『주역』은 신라인의 일상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테면 신라 국학의 선택 과목 가운데 『주역』이 있었다. 또한 경주 화곡 와요지는 5세기 말부터 9세기까지 토기와 기와를 생산한 대단위의 공방 유적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물품은 월성과 동궁 등지에서 소비되었다.⁴⁰⁾ 1번 수로에서 팔괘의 艮을 상징하는 기호(☶)가 찍힌 파수호와 인화문개가 출토되었다. 이와 동일한 기호가 찍힌 토기가 인왕동 556·566번지 유적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⁴¹⁾ 김재홍은 기호(☶)가 팔괘의 하나로 山을 상징하고 방향은 동북방을 지칭한다고 보아, 월성에서 유적의 방향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실제 인왕동 556·566번지 유적에서 山이 각서 된 토기가 발견되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⁴²⁾ 다만 山명 각서 토기는 한자라기보다 기호에 가까우며, 이와 유사한 토기가 근화여고 부지 석실분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⁴³⁾ 따라서 山은 주역의 방향을 의미한다기보다 제작수량을 체크할 목적인 기호 卅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외에 월지에서도 ‘十二支’朱書銘 骨壺(雁904)에도 전면에 子와 四卦가 희미하게 관찰되며, 뒷면에는 午와 四卦 가운데 離가 확인된다.⁴⁴⁾ 구체적인 양상은 2개의 맺음 고리 바로 아래 종으로 쓴 子와 괘가 희미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반대편에 午와 그 아래 감괘(☶)가 주서 되어 있다.⁴⁵⁾ 괘는 문자가 아니라 상징체이다. 토기의 외면에 주서로 수백 자에 달하는 명문이 쓰여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명문의 잔존상태가 나빠 판독하기가 어렵다. 토기에 『주역』의 괘가 그려진 경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역』에서 사고하는 말과 글은 생각의 일부분 밖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으로 본다.

40) 이동주, 앞의 논문, p.210.

41)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36)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遺蹟』, 2003.

42) 김재홍, 앞의 논문, p.144.

43)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경주 용강동 고분군 II』, 2010.

44) 고경희, 앞의 논문, p.34.

45) 朴方龍, 「新羅十二支骨壺에 對한 小攷」, 『新羅文化』 7, 1990, pp.193~194.

그래서 토기에 찍힌 팔괘가 의도했던 것은 그저 방향 지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 문무왕은 죽어 동해에 장사 지냈다. 감은사 창건 내력과 관련 있을 寺中記에는 ‘유골을 간직한 곳을 대왕암, 절을 감은사라 하고, 뒤에 용이 나타난 것을 본 곳을 이견대라 하였다’⁴⁶⁾고 명명된 내력이 전한다. 이견대의 명칭 역시 원형이정과 관련이 있다. 즉 『주역』 건괘 편 의 “飛龍在天, 利見大人”이란 구절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문왕이 용을 보고 나라에 크게 이익이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원형이정의 利를 너무 세속적으로 해석한 것이 된다. 『주역』에서 利見大人은 陽爻와 관련이 있다. 즉 양효를 만난다는 것이다.⁴⁷⁾ 공자는 『주역』 건괘 “見龍在田, 利見大人”을 부연하길 ‘子曰. 龍德而正中者也. 庸言之信. 庸行之謹. 閑邪存其誠. 善世而不伐. 德博而化. 閑邪存其誠. 善世而不伐. 德博而化. 易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君德也.’라고 하였다. ‘대인을 용의 덕으로 바르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자, 평소 말에 믿음이 있고 행동에 신중함이 있으며, 샷된 것을 막아 정성을 간직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되 무력을 쓰지 않아 덕을 널리 베풀고 실현한다’는 것이다. 곧 임금의 덕과 관련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대인은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는 『주역』을 인간의 일상사에 접목시킨 사례라 하겠다. 신문왕은 부왕의 장례기간 중 범 나물게 귀족들의 도전을 받았다. 그가 정치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재구성을 통해 문무왕 못지않은 리더십을 입증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때 부왕의 카리스마를 계승하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견대에서 봤다던 용은 죽은 부왕을 상징한다. 이 과정은 정통성을 추인받는 일종의 상징조작이다. 신문왕이 만파식적을 얻는 과정도 극적이다. 이견대에 행차하여 감은사에 유숙하고, 다음날 午時에 대나무가 합쳐져 하나가 되었고, 천지가 진동하며 비바람이 몰아쳐 7일 동안이나 어두웠다가 그 달 16일에 평온해졌다.⁴⁸⁾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회귀되는 전형적인 서사구조이다. 이는 『주역』 괘사에 내재한 음양의 관념 혹은 음양론을 통해 인간이 당위 규범을 정하는 틀이 적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김유신 열전의 사론에도 『주역』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된다. “신라에서 庾信을 대우

46) 『三國遺事』 卷2, 紀異2 萬波息笛 “寺中記云. 文武王欲鎮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爲海龍. 其子神文立開耀二年畢. 排金堂砌下東向開一穴, 乃龍之入寺旋繞之備. 蓋遺詔之藏骨處名大王岩, 寺名感恩寺. 後見龍現形處名利見臺.”

47) 백은기, 「『주역』에 나타난 실천의 의미: 이유유왕(利有攸往)과 이견대인(利見大人)과 이섭대천(利涉大川)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69, 2013.

48) 『三國遺事』 卷2, 紀異2 萬波息笛 “王喜以其月七日駕幸利見臺, 望其山遣使審之, 山勢如龜頭, 上有一竿竹, 晝爲二夜合一. 使來奏之, 王御感恩寺宿. 明日午時竹合爲一, 天地振動風雨晦暗七日. 至其月十六日風霽波平.”

함에 있어 친근히 하여 간격이 없고, 위임하여 의심치 않으며, 그 계교를 행하고 말하는 바를 들어서 쓰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였으니, 가위 六五 童蒙의 吉함을 얻었다고 할만하다. 그러므로 유신이 그 뜻한 바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중국과 협동 모의해서 삼국을 합쳐 한 집을 만들었다"라고 한다. 이는 『주역』의 卦를 풀어 김유신을 설명한 것이다. 六五는 卦의 六爻 중 五爻의 陰劃을 의미한다. 이 爻는 유순한 음으로 五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남의 가르침을 마다하지 않는 童蒙처럼 하기 때문에 吉하다는 것이다. 군주와 신하가 서로 화합하여 끝내 삼국통일의 과업을 이룰 수 있었던 정황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다.⁴⁹⁾

한편 토기의 서사 공간에서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 이는 문자 못지않게 그림도 의도해서 그렸다고 생각된다. 『주역』은 농경을 하부구조로 하여 형성된 관념 체계이다. 따라서 변화란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의 변화는 생명을 온전하게 피어나게 하여 우주 조화를 완수하는 과정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토기의 그림을 보면 구름 혹은 바람과, 땅에서 피어난 초화가 확인된다. 그림의 순서는 문자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이다. 그렇다면 구름 혹은 바람이 먼저 그려졌고, 나중에 초화가 그려진 셈이다. 구름을 자세히 보면 거의 물음표처럼 되어 있고, 머리 부분을 진하게, 꼬리 부분을 연하게 그려서 흡사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구름이라기보다는 바람에 가깝다. 토기의 방향을 고려하면 동풍을 표현한 것처럼 여겨진다. 만약 구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땅 위에 핀 초화를 그렸다. 초화의 상단부에는 열매를 의미하는 원을 그렸고, 주변에 점을 찍어 꼭지를 표현한 데서 유실수를 그린 것 같다. 이 그림은 『주역』 원형이정의 순환구조가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元은 始이며 씨 뿌리기를 의미한다. 亨은 長이며 바람이 잘 불어주고, 구름이 비를 내려주어 생장을 돕는다. 利는 遂이며 잘 여문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다. 마지막 貞은 수확한 곡식을 잘 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은 원형이정의 순환구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주역』의 순환구조는 인간사회의 질서와 규범의 모델이 결국 大道의 운행질서인 우주의 형평성을 전범으로 하였다. 자연의 흐름은 인간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49)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84, p.377.

V. 맺음말

경주 월지에서는 신라 귀족과 왕족들의 삶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당시 신라인이 직접 쓴 육필 자료는 큰 관심을 받았다. 행정 문서로 사용된 목간도 있었지만 토기나 기와에 쓰인 단문이 수량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였다. 토기에 문자를 쓰는 행위는 대단히 이질적이다. 목서 토기는 먹으로 토기에 문자를 쓴 것을 의미하는데, 소비지에 공급된 이후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것이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 신라인들은 토기에 문자를 써넣었을까. 이를 통해 신라인들의 사고, 교양, 제의의 양상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목서 토기 가운데 소위 ‘言·貞·茶’명 완(雁836)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판독에 앞서 출토 정황을 검토하였다. 목서 토기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토 정보의 사실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결과 토기의 대부분은 건물지 인근이 아니라 반대편 호안석축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이는 토기의 목서 행위를 고찰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출토된 정황을 유념하면서 판독문을 점검하였다. 보고서에는 ‘言·貞·榮’으로 판독한 이래, 고경희의 논문에서 ‘言·貞·茶’로 언급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통용되었다. 茶라는 단어로 인해 이 토기는 신라시대 차 문화와 관련된 자료로 활용되었다. 판독 결과 명문 중에는 적어도 茶로 확정할 수 있는 글자는 없었다. 그리고 榮 혹은 茶로 본 글자는 당나라 서법 자료를 보면 오히려 崇에 가깝다. 토기의 중심 글자는 言·貞·崇이며, 『주역』의 사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선상에서 글자가 부분의 구름문과 초화문은 자연의 상징으로 그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글자와 그림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문맥과 연동된다. 『주역』은 신라 국학의 교재이며, 고대인의 사고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 『주역』은 신라 관료들이 교양으로 익히고 있던 경전이다. 이 토기는 월지 내에 위치한 건물지가 아니라 호안 인근에서 출토되었다. 이는 목서 행위가 건물을 벗어나 산수를 유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먹물과 붓이 사전에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동궁 산하 관료들이 개입되었음을 개연성이 높다.

투고일 : 2018. 10. 29. 심사개시일 : 2018. 11. 26. 심사완료일 : 2018. 12. 6.

〈참고문헌〉

『周易』, 『三國史記』, 『三國遺事』, 『谿谷漫筆』.

高敬姬, 「新羅 月池 出土 在銘遺物에 對한 銘文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3.

奇允姬, 「신라 興德王代 茶 재배와 사회적 의의」,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國立慶州博物館, 『文字로 본 新羅』, 학연문화사, 200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36)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遺蹟』, 2003.

國立中央博物館, 『雁鴨池』, 通川文化社, 1980.

국립중앙박물관, 『문자, 그 이후』, 통천문화사, 2011.

국립청주박물관,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통천문화사, 2000.

김재홍, 「新羅 王京 出土 銘文土器의 생산과 유통」, 『한국고대사연구』 73, 2014.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경주 용강동 고분군 II』, 201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1978.

朴方龍, 「新羅十二支骨壺에 對한 小攷」, 『新羅文化』 7, 1990.

_____, 「傳 嶺南地方 出土 墨書銘有蓋高杯」,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新興印刷所, 1996.

백은기, 「『주역』에 나타난 실천의 의미: 이유유왕(利有攸往)과 이견대인(利見大人)과 이섭대천(利涉大川)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69, 201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유물에 새겨진 古代文字』, 소문출판인쇄사, 1997.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84.

이동주, 「경주 화곡출토 在銘土器의 성격」, 『목간과 문자』 10, 2013.

李東憲, 「統一新羅 開始期の 印花紋土器: 歷年代 資料 確保를 위하여」, 『한국고고학보』 81, 2011.

이영호, 「新羅의 新發見 文字資料와 研究動向」, 『한국고대사연구』 57, 2010.

趙成允, 「新羅 東宮創建瓦磚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博士學位論文, 2013.

황준연, 「『주역(周易)』 건괘(乾卦) “원형이정(元亨利貞)” 해석의 유형에 관한 고찰」, 『倫理研究』 121, 2018.

高島英之, 「墨書土器」, 『古代出土 文字資料の研究』, 東京堂出版, 2000.

吉村武彦, 「墨書土器研究の現在: データベース化された墨書土器」, 『駿台史學』 117, 2003.

門田誠一, 「墨書土器の吉祥語と史的背景: 「天福來」の検討を通じて」, 『佛敎大學宗教文化ミュージアム研究 紀要』, 佛敎大學宗教文化ミュージアム, 2013.

滋賀縣教育委員會文化部文化財保護課・滋賀縣文化財保護協會編, 『琵琶湖大橋有料道路建設工事に伴う栗東町高野遺跡發掘調査報告書』, 滋賀縣教育委員會, 1987.

石黑ひさ子, 「中國における「墨書土器」および「墨書陶磁器」」, 『古代學研究所紀要』 18, 2013.

友納千幡, 「墨書土器の難解文字に關する一考察: 千葉縣印旛沼西岸地域の出土事例を中心に」, 『千葉大學大學院人文社會科學研究科研究プロジェクト報告書』, 2015.

坂本佳代子・岩澤和徳・松田朝由, 「墨書土器の性格: 鹿兒島を例として」, 『繩文の森から』 2, 鹿兒縣立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04.

平川南, 『國史大辭典』 12, 吉川弘文館, 1991.

_____, 『墨書土器の研究』, 吉川弘文館, 2000.

〈Abstract〉

The Meaning of Inscription on Ink-inscribed Pottery(墨書土器) Excavated from Weolji Pond(月池) in the Silla Dynasty

LEE, Dong Joo

Many relics to judge the lives of Silla's royalty were excavated from Anapji[the present Weol-ji pond(月池)] in Gyeongju. Among them, the Ink-inscribed pottery(墨書土器) is useful data to examine the aspects of thoughts, culture, vestments, etc. of the then Silla people. This study analyzed the so called 'Eon · Jeong · Da' bowl(言 · 貞 · 茶'銘 盃)(No.雁836) to understand the meaning which the Ink-inscribed pottery has. The study presumed the clues to presume the use and function through the content of the inscriptions by inferring the environments where inscriptions could not but be written focusing on the time of description. The Ink-inscribed pottery is narrated with a certain purpose in the points of consumption.

The study examined focusing on what need caused the pottery to be narrated. First of all, the study executed a rereading through the photos of favorable data with suspicion of the existing reading. As a result, it identified that the existing report on reading was described differently from the excavated report, research papers, catalog, etc. And since it was termed 'Eon · Jeong · Da' bowl '(言 · 貞 · 茶'銘 盃)' in the thesis of Go Gyeong-heui, in the excavation report, it was read as 'Eon · Jeong · Young' bowl('言 · 貞 · 榮'銘 盃), and has been used as it was. As a result, this relic caused a fixed idea that it is used in discussing the tea culture of Silla Dynasty. As a result of rereading, at the very least, a letter that could be read as Da(茶) was not identified in the scription. The character is shown as 'Eon · Jeong · soong'(言 · 貞 · 崇).

Many letter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light and shade(濃淡) are identified on the outside of the pottery. There are five thick letters, with two letters small and three big letters written at regular intervals. Between the big letters is the soft letter jeong(貞) written repeatedly. It is thought that the central letter of this pottery is Jeong(貞). On the part where the letters end are clouds and flowering plants painted. It is thought that interpretation of the pictures as well associating with the letters is rationa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scription, it was seen that the inscription was associated with 『Choui(周易)』. In other words, the contents of the characters are related to 'won · hyung · ri · jeong'(元 · 亨 · 利 · 貞) in 『Choui』. 『Choui』 was used even as a textbook of Gukhak(國學) in the Silla Dynasty. Accordingly, this pottery is an important relic to guess the level of sophistication of the then Silla's loyalty.

Key Words : Weol-ji pond(月池), Ink-inscribed pottery(墨書土器), Choui(周易), 'Eon · Jeong · Da' bowl('言 · 貞 · 茶'銘 盃)